

# 2025 FEBRUARY 2

#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CONTENTS

### 01 COVER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

### 02 FOCUS

지역사회 의료돌봄에 '임상병리사'가 있다.

### 03 INTERVIEW

경기도회 유광철회장

## 제505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디자인 서경아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5년 중점사업으로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2025년 협회 중점사업으로 진행한다.

협회는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회의를 1월 1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및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집행부와 전국 임상병리학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보건 의료기술 발전 및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제한으로 교육과정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협회는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당위성, 진행방안, 공동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했고 장성호 교육이사는 학제일원화 설문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이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형수 전 교육부회장은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법제화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회의는 전국 임상병리학과장들이 7개 조로 나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의는 임상병리학과 학제일원화 의견, 학제일원화 이후 계획에 대한 고찰 및 방향성, 물리치료학과와의 협업 방식, 학제일원화 법제화 방식 및 일정 논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별 발표에서는 모든 조가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에 대해 동의했으며 학제일원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학제일원화가 되면 높은 역량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그들이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 대학교에서도 임상병리학과 위상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 회의가 학제일원화의 시발점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뤄지면 좋겠다"며 "학제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임상병리사의 역할 확대와 직업적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정관 제23조에 의거, 2025년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25. 02. 22 (토) 오후 2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안건(안):
- [제1호 의안] 전 회의록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4년도 회무 및 경과보고의 건
- [제3호 의안] 2024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관 개정의 건
- [제5호 의안] 대의원총회 부의장 선출의 건
- [제6호 의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홍창식

# 지역사회 의료돌봄에 ‘임상병리사’가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기유

지난 2024년은 이광우 협회장이 이끄는 28대 집행부에게 다양한 도전과 가능성을 만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초유의 간호법 통과와 의정갈등 속에 임상병리사의 권익과 직역확대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으로 임상병리사 업무와 직역에 관련된 곳은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때마다 끝없이 반복되는 도전과 좌절,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힘의 열세에서 오는 답답함, ‘과연 우리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직역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12조 간호사의 업무에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건강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 역할’이라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2026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서 임상병리사가 돌봄의료 필수요원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 2025년 을사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해야 할 아니, 해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안 중에 하나인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돌봄 함께하는 국민건강 지킴이 임상병리사’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돌봄사업에 임상병리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인근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고위관계자를 이광우 협회장과 함께 만났습니다. 협회의 현안인 2026년 3월에 실시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처럼 임상병리사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자리 이기에 나름 준비해간 자료를 드리고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침이 마를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가만히 팔짱을 끼고 들던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임상병리사들이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방문검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호사는 방문간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방문재활, 치과위생사는 방문구강관리 이렇게 딱 설명이 되는데 임상병리사는 딱히 왜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에 담당부서 책임자를 만나게 해줄테니 논리를 잘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왜?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어떻게 해야 왜와 무엇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라면 모두가 주변에 있는 돌봄대상자나 잠재적인 돌봄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임상병리사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왜 필요한가?

2025년 노인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 연령층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확대와 그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 기준 노인(65세 이상) 진료비는 48조 9,011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인 노인(65세 이상) 인구 922만 명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질병 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질 관리에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제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거

동이 불편한 수요자들을 지원하고,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의료돌봄 체계에서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에 임상병리사가 투입되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문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적정 관리를 위한 임상병리사의 맞춤형 방문 검사는 돌봄 수요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보건의료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임상병리사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에서 임상병리사는 돌봄의료 필수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검체 채취 및 검사입니다.** 임상병리사는 현장에서 혈액, 소변, 변, 객담 등의 검체 채취, 초음파검사, 심전도, 자동 혈압측정, 호흡기검사 등 현장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데이터의 피드백입니다.** 채취한 검체는 분석하여 신속하게 의사에게 피드백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학제 의료팀과의 연계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돌봄직원과 연계하여 돌봄의료 수요자의 치료계획이나 방침에 반영되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봄의료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지도입니다.** 돌봄의료 수요자나 가족에게 간단한 건강체크나 자가 검사장비의 사용법을 지도하며 재택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검사기기의 유지보수 및 정도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에 따른 ICT 활용과 원격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해 원격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임상병리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돌봄의료수요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임상병리사의 방문현장검사와 간호직역의 측정행위 차이는?

간호인력의 측정행위는 환자의 상태나 특정 건강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고, 임상병리사의 검사행위는 진단, 치료계획 수립, 질병 경과 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행위이기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퇴원, 투약과 같은 중요한 의학적 결정의 60~70%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직역의 측정행위는 그동안 협회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관하다가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간호사가 혈압 혈당 측정(23.1월), 콜레스테롤 측정(23.4월), 산소포화도 빈혈 측정(23.10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기에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 역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는 하나가 되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전문적인 방문현장 검사행위는 근거기반 보건의료에서 임상병리사 역할입니다. 임상병리사의 참여는 보건의료비용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바로 보건의료 재정의 경제적 효용성을 증대로 이어집니다. (다음호에 계속)





##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임상병리사** 역할 강화

###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유광철** 회장



지난 1월 21일(월) 오전 10시에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실시된 ‘202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및 심의 회의’에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유광철 회장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포천시 돌봄통합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임상병리사가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면서 근거자료를 전달했고, 2025년에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2024년 경기도 임상병리사회는 보수교육,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임상병리사들이 지역 사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임상병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로비 채혈실 앞에서 만난 유광철 회장은 “지역사회 임상병리사 역할에 대해 2026년 3월 돌봄통합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임상병리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임상병리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펼쳐온 유광철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경기도 임상병리사회장으로 재임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A. 경기도회 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많은 도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아직 임상병리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만큼 도달하지 못했기에 먼저, 임상병리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최신 의료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였습니다.

**Q. 지난 1년간 거둔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가장 큰 성과라면, 경기도회에서 최초로 포천시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와 혈당기계의 정도관리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임상병리사의 참여로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 면에서 우수했다고 포천시 2024년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A.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해당 사업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식습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 시 새로운 교안을 제작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교육과 비노생식기질환 증상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이혈당기의 정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결국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어서, 경기도회에서 표준화된 장비를 지원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의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Q. 협회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있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A.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인 건강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상병리사는 역할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통합돌봄 체계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기존 직군들은 이미 명확한 역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상병리사는 주로 병원 및 검사실 중심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상병리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현장 검사 항목 가운데 직역 간에 중복되는 업무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차츰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임상병리사는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 및 검사실 중심으로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단순한 검사 수행자에 머물지 않고, 건강 모니터링 및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방문건강검사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회 동정

- 01월 02일 제1차 회장단 회의
- 01월 04일 제1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 01월 06일 제1차 학술부 화상회의
- 01월 08일 신년간담회 (회장단, 자문위원, 총회의장단)
- 01월 11일 예산(안) 조정 회의
- 01월 14일 제1차 포상심의위원회 회의
- 01월 15일 평생교육원 1차 추진실무회의
- 01월 16일 제1차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01월 17일 제1차 정책개발연구위원회 회의  
기획정책부 회의
- 01월 19일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 회의
- 01월 20, 21일 외부회계감사
- 01월 23일 제504차 상임이사회
- 01월 25, 26, 31일 중앙회 정기감사
- 02월 01, 02일 중앙회 정기감사



# 제504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월 23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0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5명, 부장 26명 중 18명, 총원 45명 중 3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5년 제1차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2025년 제184차 정기이사회 개최 안내, 2025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2025년 제505차 상임이사회 및 집행부 워크숍 개최 안내,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 감사 개최 안내, 업권발전위원회 위원 추가의 건, 장인호 전 협회장 출장비 지급관련 내부특별감사 진행 보고의 건, 2024년도 시도분과 행정지도감사 결과보고,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건물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용역 입찰 공고 관련 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4년 진폐정도관리 폐기능검사 및 판정교육 대행 용역 잔금 지급, 2024년 하반기 온라인 보수교육 교부금 정산, 2024 회계연도 결산 외부감사,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납부 **△학술부** 2025년 제1차 학술회의, 2025년 해외학회 주제발표 지원자 심사, 2025년 제1차 학술 연수강좌 개최 안 **△교육부** 혈관(초음파)검사 온라인 보수교육 촬영, 제3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센터 회의, 보건복지부 현장실습과목 가이드라인 회의, 임상병리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분과학회 온라인 보수교육 강사 추천 및 온라인 보수교육 지원금 지급의 건 **△국제부** 2025 해외학회 초청 일정 및 일반참가자 모집안내 공문 발송, 중소병의원 소속 회원을 위한 2025년 해외학회 참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공문 발송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편집 및 발간, 온라인 병리협보 디자인 변경의 건, SNS 관리, 축사 및 보도자료 작성,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운영 회의의 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통합홈페이지 고도화 구축사업 잔금 지급의 건, 12월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MOU 추진, 페루 ODA사업 입찰 진행의 건 **△정무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의 **△중소병의원부** 공익신고위원회 1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1차 회의 **△보**

**협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이 진행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2025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포상대상자 승인의 건, 가처분소송 및 민사1심 소송 사건 위임을 위한 변호사 선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종합학술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기타 해외학회 발표비 지원 검토의 건, 협회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건, 2024년 결산 보고의 건, 2025년 예산 보고의 건, 2025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비 납부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의 건, 서울, 경기, 인천 지하철 동영상 광고 홍보 진행의 건을 진행했다. 6호 안건은 수정 후 의결, 그 외 안건은 모두 의결됐다. 기타토의 후 제504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간담회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과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1월 8일(수) 국회 인근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방문검사 항목에 대한 신설 요청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출했고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기일 차관은 협회의 발표를 경청한 후 정책 방향에 대해 피드백 내용을 전달했고 이어 관련 담당자인 장영진 통합돌봄추진단장을 소개하며 지역돌봄 방문검사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후 협회는 1월 17일(금) 장영진 단장을 만나 이기일 차관의 조언을 토대로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며 돌봄통합지원법에 임상병리사가 돌봄 필수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을 이어갔다.



## 중앙회 정기감사·외부회계감사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준호, 조성훈, 이동범 감사가 1월 25일, 26일, 31일, 2월 1일, 2일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중앙회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정기감사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피감 임직원은 이광우 협회장 외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이다.

정기감사에 앞서 1월 20일과 21일 양일간은 외부회계감사가 이뤄졌다. 외부회계감사는 대주회계법인 김기성 상무이사가 진행했다.

자세한 정기감사 결과는 2월 22일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 2025년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연구·정책과제 공모

2025년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연구·정책과제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예산: 연구과제 심사 후 평가에 따라 연구과제 예산 배정

필수사항: 과제 종료 후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논문 등재

제출서류: (1)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1부(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연구계획발표자료(PPT) 1부. - 제공양식 없음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amt@daum.net)

유의사항:

(1) 책임연구자 포함 모든 연구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연구자 확정 후 변경은 공문으로만 가능하오니, 연구팀 구성은 신중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2) 연구비 예산 세부 내역은 연구팀 안에서 논의하신 후, 최대한 상세히 기재

진행일정:

(1) 접수기간: 2025. 2. 5.(수) ~ 2025. 3. 7.(금)

(2) 지원신청서 심사: 2025. 3. 8.(토) ~ 2025. 3. 11.(화)

(3) 연구계획발표회 및 심사 평가(본 평가): 2025. 3. 22.(토)

(4) 선정안내: 2025. 3. 26.(수)

(5) 연구기간: 2025. 4월 ~ 연구팀별 상이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0일 연회비 할인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5년 2월 24일(월)~3월 23일(일)

**이벤트 내용** 10년치 연회비 할인  
**65만원 → 55만원**

### 혜택 및 주의사항

- 준회원(3년간 연회비 미납)도 바로 정회원 전환
- 협회 신한카드 혜택과는 별개입니다.(중복할인 불가)
- 10년치 협회비 납입만 해당됩니다.
- 10년치 납부 후 면제사유 발생 시 환불 없이 기간 연장만 가능



##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가 3월 29일(토) 오후 2시 부산에서 처음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D룸에서 개최되며, 임상미생물학 분야의 최신 지식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의료진 및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임상미생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 시** 2025년 3월 29일(토) 14:00~18:00

**장 소**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D룸

#### 프로그램명

Gram stain	김근주(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 배양의 실제	황유연(삼성서울병원)
감염질환의 분자적 진단	김시현(인제대학교)
다제내성균의 신규 항생제 보고	김광범(부산백병원)

**사전등록 기간** 2025년 2월 28일 ~ 3월 24일

**등록 방법**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홈페이지

##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 2024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선경)가 2024년 12월 21일(토) 세브란스안과병원 청파호성춘기념 강당에서 2024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의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권정아 교수가 1부와 2부로 나누어 'Morphologic Review of Hematopoietic cell'과 'Review of Hematologic malignancy'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두 번째 강의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문세훈 회원이 'Leukemia에 따른 CBC scattergram의 특징'에 대해 강연했으며 마지막 강의는 Werfen 임병진 이사가 'Antiphospholipid Syndrome'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61명의 혈액전문임상병리사 회원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교육 수료자 중 수석합격자 2명(삼성창원병원 오지영 회원, 한양대구리병원 최선희 회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는 1월 18일(토) 오후 2시 대한임



상병리사협회 관 대강당에서 재적 대의원 160명 중 118명(참석93명, 위임25명)으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2025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노일권 총회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황문선 회장은 “2025년에는 중앙회를 비롯하여 유관단체와의 정책사업 협력을 통하여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ASCPI 시험 대비 교육과 서울시회 학술제를 개최하여 서울시회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것이고 또한 유연한 변화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1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특별분회 및 구회 포상자 33명을 대표해 이길주(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회원이 수상했으며 △서울시회장 표창장 박육재 분회장(삼성서울병원), 강성민 총무(세브란스병원), 이서희 정무부장(서울아산병원), 송병주 학술부장(서울대학교병원), 전태은 국제부장(강북삼성병원), 김준엽 섭외부장(중앙보훈병원), 홍창현 정보통신부장((재)씨젠의료재단), 김미현 자원봉사단(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우수분(구)회 고려대학교병원(김정분 분회장), 경희대학교병원(김득중 분회장), 서대문·은평구·마포·용산구회(노재호 구회장) △최우수분회 가톨릭대학교병원(이혜연 분회장), △서울특별시장상 현순철 교육이사(삼성서울병원), 이민수 기획정책이사(건국대학교병원), 서미선 위원(서울지방병무청), 주명선 자원봉사단 △감사패 (주)강동그룹(대표 유동관), (주)비오메리코코리아(대표 김대환), 에이비메디컬(주)(대표 김영균), △공로패 민영훈(제27대 총회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상 설승한 사업부회장(서울아산병원)이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전 회의록 승인의 건 △ 2024년도 결산 심의의 건(경과 보고, 감사 보고, 신임 감사 선출 보고, 사업 실적 보고, 결산 보고) △2025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중앙회 대의원총회 상정(안) 심의의 건이 진행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가 1월 18일(토) 농심호텔 1층 다이아몬드 A홀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내빈 소개, 개회사, 회장 인사, 격려사, 축사, 시상이 진행됐고 2부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과보고 및 사업결산 보고, 2024년도 감사결과 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기타 토의가 진행됐다.



##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1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라온제나호텔에서 2025년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재숙 행정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의원총회는 총회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내빈 소개 및 문성식 회장의 개회사와 이도왕 중앙회 공보부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문성식 회장은 “지난해 보수교육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료박람회에서도 혈류초음파 검사 도입 등 새로운 시도로 시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임상병리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난해를 돌아봤다. 또한, “2025년에는 회원 가족들과 함께 하는 무비데이, 메디엑스포 참가와 다양한 심화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회원들의 위상과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총회에서는 2024년 대구사회 활동 동영상 시청이 진행됐고 이후 대구시장 감사장, 대구시의회 의장상 수여 등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채희영)는 1월 18일(토) 오후 4시 하버파크호텔에서 재적 대의원 65명 중 64명(참석63명, 위임1명)으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2025년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황성준 총회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채희영 회장은 “2024년은 회원들의 성원과 관심속에 제62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인천에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음에 감사인사를 하고 2025년에는 인천시 회원들의 업권과 위상을 높이고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협력하여 더 굳건한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박판순 인천광역시 시의원과 인천의료기사연합회 신천호 회장 등 외부 인사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특히 박판순시 의원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를 해주었다.

##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는 1월 17일(금) 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대의원총회는 기원진 총회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1부에서는 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채명중 의료부원장, 박현숙 실장과 광주시회 서정훈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진행했고, 협회장 인사말은 중앙회 이도왕 공보부회장이 직접 전했다. 이후 학술상, 공로상 등의 포상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진 2부 대의원총회는 전 회의록 낭독과 의안 채택 및 심의,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서정훈 회장은 “쾌적하고 우수한 총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박창수 대표원장님과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금요일 저녁, 행복한 주말의 시작임에도 광주시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여해주신 대의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서회장은 “늘 그랬듯 광주시회는 회원 분들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임상병리사의 POCT 검사 정당성 확보, 광주 소재 중소병원 회원 분들의 고통을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는 1월 18일(토)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기춘 총회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으로 참석한 중앙회 이광우 협회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덕중(전 총회회장), 김기유(중앙회 대외협력정책실장) 등 여러 내빈 및 대의원들에게 2024년 활동내역 보고와 함께 2025년 사업 예산 및 진행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경기도임상병리사로 선정된 남기형(전 제생병원), 강윤정(안산대학교) 회원과 더불어 경기도회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여러 회원과 분회 및 후원사에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다.

또한 경기도내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임은선(경북대학교), 채예지(동남보건대학교), 김윤아(서영대학교), 성주안(수원과학대학교), 전도원(신한대학교), 안형준(안산대학교), 유혜원(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이준상(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을 학생들을 격려했다.

### 아름다운 동행 - 경북대학교 임은선 학생

경기도 임상병리사회가 곧 졸업을 앞 둔 경북대학교 임상병리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은선 학생은 작년 9월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발 기부를 이어가는 등 변함없는 선행을 펼쳐 주위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임은선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4년, TV에서 우연히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발 기부 참여 영상을 본 것을 계기로 모발 기부에 첫 참여했다. 이후 2017년, 2022년에 이어 2024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어머나운동본부’를 통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임은선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일찌감치 임상병리 분야로 진로를 정한 뒤, 입시 준비 시절을 제외한 작년까지 자른 모발을 모두 기부했고 현재까지 그 굳은 결심을 이어오고 있다. 한껏 멋을 내보기 위해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싶었지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덮어 줄 결심으로 머릿결을 소중히 관리해왔다고 한다.



경기도회 봉사회 ‘다반’의 학생 회원이기도 한 임은선 학생은 얼마 전 응시한 제52회 국가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해 임상병리사로서도 새로운 첫걸음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연한 다짐을 보내왔다.



##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김창수)는 1월 18일(토) 청주시 상당구 소재의 5컨벤션 희망의 홀에서 2025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조인환 총무이사 사회로 시작해 김창수 회장의 개회사 및 중앙회 최병호 사업부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진 후 총회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청원구 송재봉 의원, 상당구 이강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흥덕구 이연희 의원은 축전을 보냈다. 또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한찬오 과장이 참석해 충북도회와 임상병리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책에 대한 협력의 뜻을 표했다.

총회에서는 의료대란 상황이 이어진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고 2024년도 경과보고와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의결했다.

한편 충북도회는 신년 첫 사업으로 중소병의원부 주관으로 도내 중소병의원의 현안과 협회의 방향성을 알리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져 2025년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실천사항을 개발하고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도지사표창 황인진(충북대학교병원), 손현준(청주성모병원)
- △협회장상 강계정(청주성모병원)
- △도회장상 강민성(충북대학교병원), 임수정(충북대학교병원), 최익현(청주성모병원), 이하니(청주성모병원)
- △공로패 정숙희(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감사패 ㈜네오랩 대표 정래욱
- △충청북도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장상 김영민(청주성모병원)
- △장학증서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오혜교, 세명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창대,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신동준, 청주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태웅,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박은솔

##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1월 18일(토) 오후 3시 구미 첨단의료기술타워 대강당에서 2025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들과 더불어 많은 내외빈이 참석

해 자리를 빛냈다.

1부 개회식은 총회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경북도회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2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및 경과보고의 건,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2025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 2025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중앙회) 선출직 대의원 선정, 발전기금 활용 건이 진행됐다.

2025년 사업안은 3가지 부문으로 △행정부문 업무분장 정착 및 임원(회원) 활동을 통한 내실강화, 임상병리사 업권 홍보 및 도회 홍보 기회 확대, 현혈릴레이사업 홍보 확대, △학술부문 수요조사 기반 보수교육 연 2회 시행, 도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요조사, 분야별/분회별 학술 집담회 실시 △사업부문 봉사단 활동, 예비 임상병리사 진로 멘토링 사업, 중소병의원 회원 지원 사업이

##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가 1월 18일(토) 오전 11시 홍성가족어울림센터 5층 나래홀에서 2025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45명이 참석했다. 1부 개회식에서 진행된 시상에서는 총 17명이 수상했고 이어진 2부 총회에서는 2024년 회무 및 경과보고, 2024년 사업 및

결산승인,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이 진행됐다.

## 2025년 중앙회 주최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정책' 토론회

**일시** 2025년 03월 22일(토) 14:00 ~ 18:00

**장소** 천안 신라스테이 미팅룸

**인원** 50명 (선착순 - 중소병·의원회원 우선접수)

- 내용**
- 1) 토론회 자료배포 및 중앙회장 인사말
  - 2)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정책' 소개
  - 3) 토론회
  - 4) 중앙회 현안보고
  - 5) 기타토론 & 중앙회에 바란다.



● **신청방법**

충남도회 홈페이지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가 1월 18일(토) 오후 3시 제주대학교병원 제1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신영숙 총회회장, 김홍주 총회부회장을 포함한 4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내용과 감사결과, 2025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1년간 제주도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 유진홍, 양선영, 정자현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과 상패를 수여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했다.

# 제5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 인터뷰

**Q. 간단하게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 임상병리학과 졸업예정자인 27살 강민제입니다.



**Q. 성적이 발표되고 수석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수석합격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국시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수석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너무 꿈만 같았고 가족과 교수님께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던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학창 시절 단 한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황하며 늘 뒤에서 순위 경쟁을 하던 학생이었고 결국 학교가 다니기 힘들어 휴학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방황하는 시간을 짧게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복학 후 꾸준히 공부하며 착실히 실력을 쌓아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제 노력보다는 가족, 교수님, 그리고 학우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주변 분들께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일하며 받은 만큼 10배로 베풀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는 면역혈청학 분야에 많은 흥미와 관심이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며 보다 정확한 진단과 환자 치료에 기여하는 전문 임상병리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

**Q. 간단하게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2학번 김이슬입니다.



**Q. 성적이 발표되고 수석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수석합격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52회 임상병리 국가고시부터 3교시 문제지를 가지고 올 수 없었기에 3교시 문제지의 정답을 확실히 체크한 것이 맞는지 긴가민가한 상태였고, 가채점 시 틀린 문제 외에도 실수로 다른 문제를 더 틀리진 않았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발표 당일에 국시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믿기 어려웠지만 '국가고시를 잘 마무리했구나'하는 마음에 안도할 수 있었고 운이 따라주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가족들,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저와 함께했던 학우들이 스쳐 지나가며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임상병리사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많은 직무 경험을 통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로 진출하여 모두가 건강한 우리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신 가족들과 대구보건대학교의 교수님, 그리고 학우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상병리학과에서 공부했던 3년은 저를 다시 성장하게 해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바른 인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도전하며 공부하겠습니다.

**Q. 간단하게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2학번 박수민입니다.



**Q. 성적이 발표되고 수석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수석합격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수석합격 전화 왔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번뿐인 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 매우 뿌듯합니다.

**Q. 앞으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시험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평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저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실제 국가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의고사가 끝나면 틀린 문제와 모르는 내용은 책에서 찾아보고 오답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맞은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개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오답노트를 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가시험을 준비하던 열정 그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하면서 임상병리학문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가시험 준비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가시험을 위한 이론과 실습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믿고 의지해 주신 부모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A반 동기들!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힘내보자!

**Q. 간단하게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임상병리과에서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 취득을 앞두고 있는 전하늘입니다.



**Q. 성적이 발표되고 수석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수석합격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시험을 치르기 직전까지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공부했지만, 헛갈리는 문제가 있었고 수석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처음 소식을 접하였을 땐 크게 실감 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축하를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교수님들께 보답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가고시 시험 결과를 들으며 '이제 임상병리사로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지만, 그 처음을 좋게 시작한 만큼 그동안의 노력을 양분 삼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상병리사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지만, 그중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인 NGS를 이용한 분자 유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NGS를 통해 질병의 기원을 유전자에서 찾아 정확한 치료에 기여하고, 더 공부해 나가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전하는 임상병리사가 될 것입니다. 학교 실습이 아닌 첫 실무에 나갈 생각에 떨리기도, 설레기도 합니다. 국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듯이 실무에서도 임상병리사로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간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부모님과 경북대학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했던 동기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2월 27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 ♥ 제504호 당첨자

###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료

유수경(정회원) / 전화번호 : 53974

협회에서 임상병리사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다는게 멋지고 자랑스롭습니다. 해외취업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보다 더 넓은 무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지금처럼 회원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사업을 찾아서 진행해주신다면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호부터 온라인으로 병리협보를 받아보게 되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편물은 간혹 분실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협보가 오니까 틈나는 시간에 차근차근 볼 수 있고 협회사업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회원 동정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황원주 회장  
2025년 1월 1일  
부산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보건 2급 발령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엄진영 회원  
2025년 1월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본부장 승진

# TRIMMING KNIFE HANDLE



핸들 소재가 목재 분말을 51% 이상 함유한 WPC(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로 변경됩니다.



홈페이지  
www.hyunil-lab.com



쇼핑몰  
www.lab-mate.com



### WPC 소재를 사용합니다.

WPC는 목재 분말의 51% 이상 함유되어 있어 석유 자원의 사용을 줄이며, 우수한 제품 성능과 품질을 제공합니다.



### 화학 저항성이 향상됩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유기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기존의 FEATHER 블레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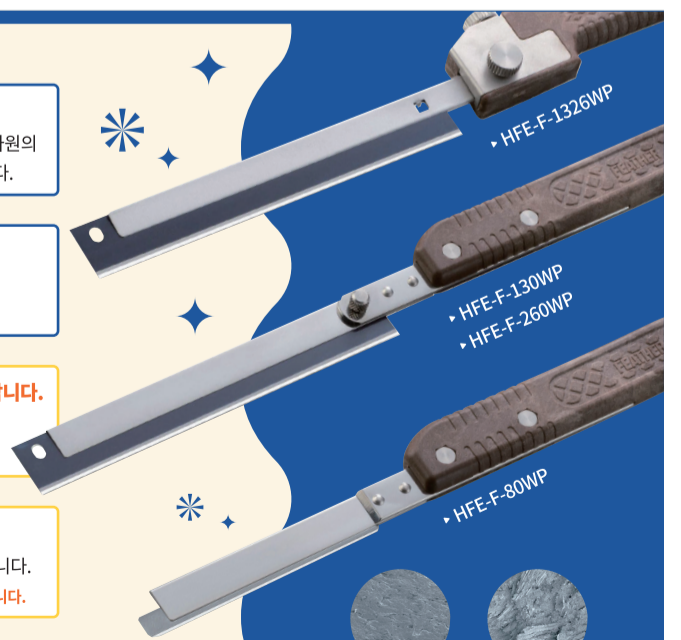
당사의 블레이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블레이드 장착 및 제거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 핸들은 손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WPC는 천연 목재의 질감과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목재 분말이 사용되어 외관의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는 환경과 작업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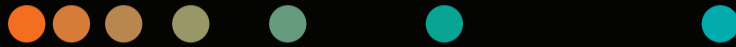
핸들 표면(확대)

핸들 단면(확대)

# Atellica® CI Analyzer

## Integrated Chemistry and Immunoassay Analyzer

siemens-healthineers.com/atellica-ci-analyzer



QR700002239

Small Size. Big Impact.

## 임상화학 · 면역 검사 통합 솔루션

Atellica® CI Analyzer 장비는 임상화학 · 면역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시스템 기능 및 특징점

- 독립적 운용 형태 임상화학 · 면역 검사 동시 수행 - 검체 로딩 위치 동일
- 검체 저장 공간 최대 120검체 (60 input / 60 output)
- 시간당 검사 처리
  - 생화학 : 1000 tests/hr (일반화학 600, 전해질 400)
  - 면역 : 120 tests/hr
- 시약 장착
  - 생화학 : 총 70개 포지션 (Single & Dual reagent kit)
  - 면역 : 총 40개 포지션 (주시약 20 / 보조시약 20)
- 응급 검체 처리 검체 로딩 후 1분내 검사 시작
- Atellica® Solution과 동일 시약 플랫폼 백업 기능 효과 및 시약 관리 편리성

## 새로운 소프트웨어 형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

- 앱 형태로 검사실별 특화된 메뉴 구성
- 샘플 관리 추적성 강화
- 환자, 칼리브레이션, QC 결과 통합 관리



<https://pr.seegenemedical.com/>



#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등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및 검진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질병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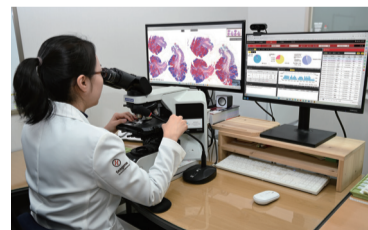
##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